

입법전쟁 2라운드 '인사청문' 회오리

■ 2월 국회 '개각 변수' 급부상

輿 전략 조정...쟁점법안 연계 차단 주력

野 "TK편중 친정체제 인사"... 철저 검증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흥미영 전 의원 등 당직자들이 19일 인천시 만석동 랭비부리마을 주공비자아파트 폭

방촌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쟁점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전력의 분산이 불가

피해졌다. 국민의 관심이 인사 쪽으로 경기 히 솔리면서 쟁점법안 대국민 흥보전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인사 행태로 미뤄볼 때 예상되는 정치인 입각 배제와 특정지역 인사 독식 등에 대해 당내 불만이 제기되면서 당내 분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 흥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개각을 2월 국회 이후로 미뤄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원내 전략과는 상관없이 인사를 단행한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인사청문회와 법안처리 분리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법안처리는 법안처리대로 철저히 겸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당내에서는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입법전쟁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시국회 초반인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의 흡결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 결국 2차 입법전쟁 여론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다.

당 관계자는 "여대 인사청문회를 보면 여권에 항상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됐다"며 "따라서 2월 임시국회 초반의 분위기는 야당 위주로 전개되고 이후 벌어질 입법전쟁에서도 야당은 유리한 패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가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 이어 19일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입법전쟁 2라운드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 초·중반까지는 국회가 인사 청문회 정국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은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 주요 청문회 대상에 대한 입법동의안은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대폭 개각이 아닌데, 총리 교체가 없기 때문에 인준 표결을 밟지 않는 청문회인 만큼 큰 틀에서 임시국회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돌발변수 발생으로 초반부터 긴장 국면이 발생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시국회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상황을 봄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2월 임시국회 원내 전략을 다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에 인사청문회까지 더해져 짐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계다가 이당은 벌써 이번 인사를 "TK(대구·경북) 편중, 친정체제 구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팽공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 야당이 쟁점법안과 연계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도

■ 1·19 개각 여야 반응

"국민 마음 얻는 인사" vs "국민 무시 반란인사"

입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개각 시기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은 "강권통치 교사", '반란인사', '향량 미달' 등 거친 용어를 동원, 이번 개각을 혹평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강권통치를 교사한 것"이라며 "경북, 고려대, 공안통을 배치한 'KKK 인사'라며 "당령인사, 통합인사라는 국민적 요청을 완전히 무시한 국민 반란 수준의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9명의 장·차관 중 고려대 또는 TK(대구·경북) 출신이 9명이라고 지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공안통치, 강권통치를 하기 위해 친이(親李) 세력을 발탁한 돌격 내각"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대폭 개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어이없게도 차관 교체를 통해 숫자만 맞춘 험량미달 개각을 보여줬다"며 "정과 초월은 커녕 집권여당

인 한나라당의 인사마저도 개각 인선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편협한 자기 사람 행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호 대변인은 "국난의 시대에 친이(親李) 친정체제 구축에 골몰하는 것을 봤을 때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은 만년하침"이라며 "이번 개각은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돌파구내각으로서, 집권 2년차 변화와 혜신이 불가능해졌다"고 비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인기, 영산강 뱃길 복원 '숨은 공신'

공사 중요성 강조 예산 2,192억 확보



쇄 접촉,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예산 국회 당시, 민주당 예결 위원장을

맡으면서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예산 2천192억원을 확보하는 개발을 올렸다.

이 같은 활동을 반영하듯, 지난 16일 전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최인기 의원에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를 책임지고 확보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북특사 파견 필요”

한나라 홍정욱 의원



“DJ, 방북 용의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초청과 우리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방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바마 정부 출범 후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의 초청과 정부의 요청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경직된 '비핵·개방 3000'을 지난 1년간 유지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책의 결과가 없었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격은 김영에서

www.kimyung.ac.kr

그동안 20만 5천여명 만족한 학원!

김영면입학원

광주·전주·경찰·경찰사전형 063-227-6000

www.kimyung.ac.kr

그동안 20만 5천여명 만족한 학원!

김영면입학원

광주·전주·경찰·경찰사전형 063-227-6000

2010학년도 편입대비

대학편입 대개정 2월 2일

산행안내

www.kimyung.ac.kr

그동안 20만 5천여명 만족한 학원!

김영면입학원

광주·전주·경찰·경찰사전형 063-227-6000

한국의 성문·한국의 대학

2010학년도 편입대비

대학편입 대개정 2월 2일

"삼백만원 추출회원" 출신가족

무료체험단 모집

www.kimyung.ac.kr

그동안 20만 5천여명 만족한 학원!

김영면입학원

광주·전주·경찰·경찰사전형 063-227-6000